「大學教育」—創刊에 붙여—

文敎部 長官 李 奎 浩

大學敎育의 水準向上이라는 절박한 目標를 위해 全國의 大學이 참여하여 發足시킨 大學敎育協議會가 초창기의 어려운 與件下에서 「大學敎育」이란 會誌를 創刊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大學敎育은 짧은 歷史임에도 그 동안 長足의 發展을 거듭해 왔고, 그 結果 이제는 數百年의 歷史를 지닌 外國의 大學에 비해서도 많은 면에서 어깨를 함께 할 정도가 되었읍니다. 그리고 이러한 大學의 發展은 바로 國力伸張에 直結되어 우리가 지난 20여년간 이룩한 놀라운 成長을 可能하게 했다고 할 수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時代의 章을 열어가는 이 時點에서 80年代의 高等敎育이 克服하고 解決하여야 할 課題들은 매우 많다는 것을 切感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優秀한 敎授要員의 確保, 敎育內容의 質的 深化와 革新, 새로운 敎授方法의 開發, 未備된 施設의 補完, 必要한 運營豫算의 確保 및 運營改善, 健全한 勉學雰圍氣 造成 등 山積한 課題들을 어떻게 계속해서 슬기롭게 克服해 나가느냐에 따라 우리 大學敎育의 장래가 決定지워질것이고, 또 그것은 곧장 國家發展의 成敗와 연결될 것입니다.

우리의 大學들이 모든 學問들에서 매우 生産的인 知性의 殿堂이 되고 우리의 國力과 文化를 先進國의 隊列로 끌고 가는 牽引車 役割을 해감으로써 그 주어진 大學의 使命을 다하자면 政府의 支援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大學의 自律的인 役割이 중요하다는 것을 强調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大學들의 個性的인 傳統들을 우리나라 전체 大學敎育의 秩序안에서 保存하고 大學의 發展을 國家的인 敎育政策의 目標와 調和시키며 高等敎育의 質的인 水準을 위하여 努力하는 일은 大學의 自律性에 屬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大學의 自律的인 努力이 大學間의 相互協助를 통하여 向上될 수 있다면 그것은 더욱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때늦은 감이 있읍니다만, 지난 봄 우리나라 모든 大學들이 부딪혀 있는 共通的 課題에 대하여 自律的으로 協議를 하고 必要한 事項을 政府에 建議하여 政策에 反映토록 하려는 趣旨에서 大學敎育協議會가 創設된 것은 대단히 鼓舞的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機構가 하루 빨리 成長하여 우리나라 大學敎育의 發展을 위한 母體로서 커다란 役割을 해주기를 바라며 모든 大學人들도 이 機構에 적극적으로 參與하고 協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本人은 이번 創刊을 본 「大學敎育」誌가 이 機構의 發展과 大學人 여러분의 協助를 얻는데 劃期的인 役割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또 이 會誌를 통해 大學의 당면과제와 그 處方이 솔직하게 投影됨으로써 大學社會와 政府를 이어주는 중요한 媒體로서 성장해 나갈 것을 바라 마지 않읍니다.

大學의 自律性은 단순히 외부에서 주어지는 大學人의 權利라기보다는 스스로의 能力에 의하여 成就될 수 있는 課題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發足한지 日淺한 協議會에서 設立 趣旨에 充實하고자 어려운 與件을 무릅쓰고 會誌創刊을 위해 애써온 關係者 여러분의 意慾과 勞苦를 致賀 드립니다.*